

해양한림원, 조선해양분야 석학 이신형 교수 '정회원 선출'

해양한림원, 상반기 신입 정회원 1명·준회원 2명 신규 선출

2024-07-18 13:59:57 | 2024-07-18 13:59: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받자!

소상공인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폐업 이후 생활안정도모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중소기업부 | 고용노동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해양한림원은 올해 상반기 신입 정회원 1명과 준회원 2명을 신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해양 분야 석학들의 모임으로 설립된 한국해양한림원의 정회원은 해양분야에 현저히 공헌한 학자 중 추천(3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 투표로 선출합니다. 준회원은 2명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번에 선정된 정회원은 이신형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입니다. 이신형 교수는 선박유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미국조선학회와 영국조선학회의 석학회원입니다. 대한조선학회 학회장,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회장 등도 역임한 인물입니다.

준회원으로는 하호경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남성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하호경 교수는 퇴적역학분야를 전공하는 등 점착성퇴적물 연구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인하대에서 최상위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교수에게 수여되는 'Inha Fellow Professor'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남성현 교수는 해양물리학을 전공하는 등 '북태평양 해양과학기술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국제공동 현장관측연구를 주도하고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2도가 오르기 전에' 등의 대중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포항공대 교수)은 "신입 회원 선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룬 해양 분야 석학을 발굴하고 예우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해양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미래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행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를 뛰어넘는 뉴스레터
TOMATO LETTER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